사라지는 마을 둔대리

'대야미를 기록으로 복제하다'

임효례작가의 사진전이 열리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속으로 공간이동을 시킨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과거같은 현재가 사진 속에 오롯이 담겨 전시실을 찾는 이들에게 마치 빛바랜 앨범 속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듯 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진행형이고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도 마을공동체를 고수해 오신 둔대리 어르신들의 삶의 궤적이다. 제일 먼저 어른들이 서서 입장객들을 반긴다. 나란히 고깔모자를 쓰고, 바로 흥겨운 농악한마당이라도 펼칠 듯 어르신들이 "이보게들, 한 판 신명나게 놀다나 가시게!"하는 것 같아 한참을 서 있게 한다. 마음에 짱하는 울림이 찾아 온다. 한 분 한 분의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임효례 작가는 무엇을 담고 싶었을까? 두레농악의 원형을 보존하여 계승하고 계시는 둔대리 어르신들의 모습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하다. 특별한 포즈없이 그냥 서 있는 무뚝뚝함과 어색함이 묘미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다. 아마 저 고깔모자를 쓰고 꽹과리, 징, 북, 장구를 두드릴 때는 나이도 잊었으리라. 군포의 살아있는 전설로 남을 둔대리 농악보존회 어르신들의 모습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둔대리의 모습은 볼수록 정겹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 설 아파트단지를 위해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새로운 것들은 눈부시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 마음을 현혹시키며, 개발의 당위성과 기대감만을 부풀린다. 그 때 임작가의 손에서 셔터가 눌러지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라지는 것들을 담아 내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사진 속에 봉인해 버린 것이다. 임효례 작가는 알고 있다. 우리가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둔대리는 그런 곳이다.

임효례 작가와 함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둔대리 어르신의 모습에서 아쉬움과 안도가 묻어 나온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마을사람들 모두가 일시에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미련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도 둔대리 어르신들은 운이 좋은 거다. 임작가가 마을 구석구석 장독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진 속에다 모두 부활시켜 놓았으니 말이다.

파란 기와집. 이게 나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의 이미지다. 그 지붕 아래서 우리 가족은 한솥밥을 먹으며, 물질적으로는 부족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던 시간들을 보냈다. 어른이 되고 아파트 생활이 오래 되다 보니 지붕이란 단어는 일상어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가끔 문학작품에서나 기와집 또는 지붕이라는 단어를 만날 뿐이다. 임효례 작가의 대단함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지붕을 잃어 버린 세대에게 아파트보다도 근사하고 개성넘

치는 지붕빌딩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사진 속에 등장하는 지붕들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고,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던 그리움이 묻어 있다. 아파트처럼 획일화 되지 않은 지붕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 그 지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을 꾸려 나갔는지 알 수 있다. 똑같은 현관, 똑같은 구조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야할 우리 세대는 무엇을 잃어 버린 것일까? 지붕연작 사진 앞에서 발길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지붕 연작 만큼이나 흥미로운 사진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대문연작이다. 과거 조상들은 새해가 되면 대문에 문배도를 붙이며 일 년간 액운을 막아주길 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 현관은 너무 좁고 작아 호랑이, 까치, 소나무가 그려진 문배도를 붙일 만큼의 여유도 없다. 그리고 철제 현관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낭만이 사라진 차가운 현관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두 팔로 대문을 활짝 열던 내 모습이 그리워진다. 삐그덕 소리가 나긴 했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 설 때 나는 그다지 외롭지 않았다. 대문소리조차 정겨움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작가가 찍은 대문사진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쳐 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의 신호다. 둔대리 어르신들이 하나 둘 떠나간 집은 이제 금줄만이 쳐있을 뿐이다. 쓸쓸하다. 저 대문 안은 얼마나 많은 퇴락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제는 거미만이 주인노릇하며 거미줄을 쳐가며 살고 있을 것이다. 닫힌 대문은 곧 소멸을 예고한다. 사진 앞에서 발길을 돌리려는 내게 꽉 닫은 대문은 마치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건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내 마음 한구석에 이끼가 끼는 것 같다. 진짜 곧 사라지겠구나, 둔대리는.

마을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있어야만 생명력을 얻는다. 아무리 멋진 기와를 얻은 지붕과 솟을 대문을 갖고 있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곧 폐가가 된다. 그만큼 사람의 손길은 마을의 활력소다. 그렇기 때문에 둔대리의 최고의 보물은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어르신들이다. 젊은이들이 떠나간 뒤에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대부분 90평생을 사셨다. 임효례 작가는 둔대리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어르신들은 대문앞에서, 혹은 방안에서 원하는 자세와 모습으로 기꺼이 최고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 방안 구석 구석을 수놓은 물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료가 된다. 벽에 걸려 있는 액자들, 시계, 그림들. 어르신들의 자랑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장년이 된 아들의

학생증마저도 소중해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시실을 둘러 보다보니 포토존도 설치되어, 누구나 둔대리 주민이 되어 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모두가 해맑게 웃으며 포토존에 선다. 둔대리는 그런 곳이다. 사진 속의 나 역시 웃고 있었다. 참 좋다.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만 남아있을 것 같은 삶이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제 그마저도 떠나 보내야 한다. 자연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던 둔대리에 어떤 변화가 찾아 올까?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혹시나 빌딩 숲에서 길을 잃은 나비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순간을 담는 것이며, 작가는 수백 번의 셔터를 누른다. 임효례 작가 역시 얼마나 많은 셔터를 눌렀을까? 사라지는 것을 보존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발걸음이 얼마나 많이 대야미로 향했을까. 그 결과물이 기록으로 남아 '대야미를 기록으로 복제하다' 라는 귀한 전시회로 우리가 초대된 것이다.

이제 대야미 둔대리는 임효례 작가에 의해 하나의 예술작품집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우리의 기억 속에서 복원될 것이다.

취재 및 글 장은아